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생명과 더불어
녹색혁명으로



편집위원

김신형 목사(자연드림교회)

백영기 목사(쌍샘자연교회)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

윤태현 목사(기장생태공동체운동본부)

이성호 박사(연세대학교)

이원영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장동현 목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발간사

코로나-19가 거듭 진화하며 지구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한지 벌써 2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10년이 앞당겨진 2040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지구촌은 화석문명이라는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온실가스배출이 임계점에 다다른 2040 탄소중립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본은 스스로를 키워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본이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에게 영혼을 빼앗긴 좀비처럼 되어버린 인간과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고갈시켜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인간 뿐 아니라 금세기 안에 수많은 생명종이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멈추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등 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동안 누려왔던 편의, 개발, 유전자 조작, 핵발전, 끊임없이 늘려 온 군비경쟁 등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둘 째 가난

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인류가 더욱 더 풍요롭기 위해 거침 없이 쏟아내는 폐기물은 강과 바다, 들에 가득 차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풍요를 향한 욕망이 아닌 자발적 가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째 체제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율법을 미련없이 내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전환한 것처럼 이제 인류는 이윤 중심의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의 악순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네 째 급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급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위기 앞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의 마음으로 생명 중심의 가치를 붙들고 탄소중립에 마음을 모읍시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필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매뉴얼이 생태지향교회의 교육, 실천, 행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40년으로 앞당겨진 탄소중립의 당면과제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전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안홍택 목사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1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1-1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이론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앞에서 10
- 탄소중립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12
- 예배에서 만나는 생태적 삶 15
- 생태문명을 향한 예배와 선포 17

1-2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실천

- 1) 교회력에 따른 절기예배 20
- 2) 생태문명을 열어가는 예배 30
- 3) 간절한 마음, 거룩한 기도 38
- 4) 생명의 숲,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46

2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2-1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이론

-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교회교육 54
- IPCC의 지구보고서와 세계교회의 참여 55
-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녹색종교개혁 교육문서 58
-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생태교육 61

2-2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실천

- 1) 어린이, 청소년 위한 생태교육 64
- 2) 청, 장년을 위한 생태교육 70
- 3) 교회학교 수련회(에코캠프) 생태교육 77
- 4)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생태교육 82

3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3-1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이론

-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생태계와 문명의 위기 88
- 하나님과 창조세계 90
- 기존 선교방식을 반성하며 92
- 기후위기 시대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93
- 생태적 선교의 실천 방향: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기후위기 95

3-2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실천

- 1) 생명을 위한 선교 99
- 2) 평화를 위한 선교 105
- 3) 정의를 위한 환경선교 110
-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선교 115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PART

1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이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명다양성의 파괴”의 생태 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흙, 바람, 물은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었고, 광대한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은 산과 바다 그리고 동식물과 인간의 몸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건잡을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상기후가 속출합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염, 한파, 태풍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가뭄과 홍수는 빈번해졌습니다.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인간의 힘으로 끝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전세계에서 발생합니다. 동식물이 멸종하고 생명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생태계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인간은 생존 경쟁에 몰두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자연의 신음을 외면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는 지금의 삶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되고 파괴된 지구 자연을 회복하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미래 세

대에게 온전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탄소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자본주의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바라보며 흠족해하셨습니다(창 1장). 작은 풀포기, 아름드리 나무들, 사막과 강, 바다에 거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람, 자갈, 모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엡 4:6). 인간이 평안히 쉬고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깃든 대자연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명과 자원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나누고 모든 생명이 이 땅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울 때, 인간과 지구 자연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만물은 긴밀하게 연결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존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공유자원을 남용하고 생명을 착취한 결과가 우리 앞에 당도해있습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한국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태적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구 자연의 숨결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생태문명의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만물과 관계맺으며 공생하고 공진화하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은 지구 자연의 고통과 부정의한 사회 현실을 바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어진 착취와 폭력의 구조를 성찰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시장경제 체제가 가져온 부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부정의한 지배구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과 개발 신화에서 벗어나 인간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공존하는 서로 살림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모든 생명을 경외함으로써 어떠한 생명도 인간 생명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과 더불어 서로를 돌보는 책임적 주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가 인간과 지구 자연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변환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문명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첫 출발점이 탄소중립(Carbon neutral)입니다.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통해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제로(Zero)라는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도 불립니다.

유럽연합(이하 EU)은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세계 최

초로 넷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 서구 유럽과 아시아의 120개 나라가 발 빠르게 ‘탄소제로’ 국제동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EU는 ‘Fit for 55’(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감축)를 법안으로 제출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기후 기본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미국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2%까지 감축하는 것을 행정 명령으로 시행 중입니다. 탄소배출과 기후위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선언과 행동은 에너지 전환을 비롯하여 운송, 산업, 건축, 무역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요청하는 문명 전환의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제로)’를 목표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화석연료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를 생산·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물과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과 고용의 일자리 문제와 연구인력의 확충 그리고 기반 산업의 증대, 지역과 계층 간의 소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 위기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많은 만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고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 된 삶에서 벗어나 모두가 존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생태적 삶이자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기독교는 일찍이 응답해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199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서로 연대의 신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6년에는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라는 개념의 아가페(AGAPE) 문서를 통해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살림이 펼쳐지는 장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여 어떤 생명도 소외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지배 구조를 비판하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과 생태적 회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아가페 문서는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서로 연대하는 삶, 동시에 개인-공동체-국가가 함께하는 세계 경제를 “생명경제”라고 제안합니다. 생명경제 사상은 인간중심적인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생태문명, 즉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소비 행위, 멀리서 운반된 수입 먹거리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연의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창조 세계

에 갖든 조화로운 관계성, 그리고 지금과 다른 대안적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실천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지구 자연과 인간을 억압하는 불의한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예언자의 정신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경륜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교회의 예배와 말씀 선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에서 만나는 생태적 삶

기독교인의 삶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예배 의식’ 혹은 ‘전례’를 의미하는 “리터지”(liturgy)의 어원은 헬라어 “레이투르기아”(λατουργία)입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사람’과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λαος)와 ‘일’과 ‘노동’을 뜻하는 ‘에르곤’(ergon)이 결합된 말입니다. 레이투르기아에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하는 거룩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며 세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세상의 요청에 응답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인 기독교인의 의식과 삶의 태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세상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태계의 위기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 자연 질서를 통해 섭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생명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신앙은 가장 작고 낮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생명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고백하며 생명을 지향하는 온전한 삶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훼손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왜곡과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의 바른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고통받고 신음하는 생명과 소멸되는 생명에게 있습니다. 생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연 세계를 회복하고, 사회의 부정의와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잡는 데 앞장 서야 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앞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습

니까? 예배에서 우리는 자연의 고통에 감응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반성하며, 진정한 생태적 회개와 생태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가치이자 생활방식입니다.

생태문명을 향한 예배와 선포

예배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 과정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응답하는 예배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실천이라는 구체적 과제에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태적 삶을 시대의 과제로 삼고,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협력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선포에서 파송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전 과정은 교회의 목회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의 의식적이고 자발적 참여 속에서 생태 문명을 향한 예배와 말씀 선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태교회의 목회 방향: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교회는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고백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성을 반성합니다.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교회는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목회의 방향과 목표로 설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살림의 삶이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넘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삶은 기후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피조물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 밖 세계로부터 배우고, 세계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생태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은 목회자와 직분자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절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처에서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교회의 말씀 선포: 생태교회의 목회 방향은 말씀 선포에서 나타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케리그마(κῆρυγμα)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선포합니다. 생태 위기 앞에서 케리그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의 바른 의식과 결단을 요청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무한경쟁과 생존투쟁,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소외의 현상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세상은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환대, 그리고 연대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세계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예언자의 소명을 갖고 낮고 가난한 이들의 소리가 말씀 선포 가운데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결단하고 모든 생명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온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말씀의 선포가 지향할 바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지향이 될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 자연은 인간 삶의 근원이자 미래를 위한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존을 위

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 되고, 교육 프로그램과 신앙인의 삶의 타협할 수 없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이 갖는 의미를 교인들과 공유하고, 이 시대 기업의 가치가 더 이상 이윤 추구가 아니라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에 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해의 교회의 삶을 교회력에 따라 실천합니다. 교회력은 세상 가운데 계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인간의 응답과 실천을 담은 것입니다. 교회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이루어갑니다. 따라서 생태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교인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소비하는 많은 에너지, 교회 건물의 유지와 보수 그리고 교인 식사와 교회 내 소모임 등 교회 내 많은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모든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자 예배의 주체로서 바로 설 때, 생명 사랑과 구원이 기독교인의 생각과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태 기도를 통해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고백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물질적 삶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예배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모아 생태교회 매뉴얼은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예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태문명의 삶이 교회예배와 말씀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실천 •

1.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

한 해의 교회 예배와 목회 생활은 교회력에 따른 삶으로 구성된다.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사랑의 섭리가 인간 삶에서 운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동력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 다음 시가 보여주듯이 한 명의 농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며 일구는 일에 참여한다면, 이 땅에 신음하는 지구 자연과 고통받는 동식물, 그리고 훼손된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각 절기 예배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걸음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교회력에 따른 생태 예배를 제안한다.

※ 예배 실천하기 매뉴얼 안내

본문에서  표는 Youtube에서,  표는 Google에서 제시어를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농부는

-서정홍

농부는,

땅을 일구며 날마다 별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논밭에서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지렁이 한 마리 귀하게 여기는 환경운동가입니다.

하늘을 보고 심고 거둘 때를 아는 천문학자입니다.

생명을 기르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철학자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의사입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시민사회 운동가입니다.

온 겨레를 먹여 살리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입니다.

땀과 정성으로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참된 교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이야기꾼입니다.

여린 새싹 앞에서도 머리 숙일 줄 아는 수도자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는 성직자입니다.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고르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는 '희망'입니다.

(서정홍, 농부 인문학/우리 교육)






하나님의 창조절

창조절은 세상을 창조하고 살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창조세계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9월 첫째 주일에서 대림절 전까지 기간을 이룬다.

생각하기

- 창조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한다
-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나눈다.



찾아보기

- 창조절을 아시나요? 
- KBS[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4부작 '붉은 지구'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에큐메니칼 창조절 안내서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창조절 안내서(Season of Creation)를 한국어로 번역 배포함)

실천하기

- 물과 바람, 흙을 재료로 오감을 통한 예배를 경험한다.
- 창조세계와 생태위기에 관해 설교한다.
- 한국의 24절기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 창조절 기간 동안, 창조절 기도 나눔과 묵상을 한다.
- 기후위기를 위한 헌금을 통해 생태계 보존에 앞장선다.

찬양하기

- 주님에 대해 말하라 하면(나무엔, 이민섭) 
-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John Rutters) 





대림절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구 자연의 회복과 새로운 평화를 기대한다.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는 세상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생각하기

-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 성탄절이 온 생명과 우주의 은총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시대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롬 8:18-22)는 무엇인가요?



찾아보기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2020.
- 위태로운 지구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에너지전환 
- 대림절 생명 살림 묵상(덕신교회) 

실천하기

- 대림절 주간 초를 밝히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 전기 없는 대림절 성탄 장식을 기획한다.
- 온 교회가 함께 생태적 관점의 성탄 예배를 기획한다.
- 대림절 주간 세상의 불의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

찬양하기

- 대림에 함께하는 기다림의 찬양하기(함께 교회) 
- 사랑이 나타나셨네 (#산 위의 마을 워십) 






주님의 사순절과 부활절

사순절과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생각하기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 지구의 아픔, 땅과 하늘의 아픔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십자가와 부활이 생태위기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찾아보기

- [살림 브런치]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 『찬미 받으소서』 E-boo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CBS] 한국교회에 생태 영성이 필요하다 

실천하기

- 사순절 주일 예배에서 생태적 회개와 신앙고백을 한다.
- 지구 자연을 위한 녹색 영성훈련(묵상과 기도)을 한다.
- 사순절 기간 더욱 소박하고 단순하며 절제의 삶을 산다.
-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소모임에서 부활과 생태회복에 관한 이야기 나눔을 한다.

찬양하기

- 주의 옷자락 만지며 
- 쌀 한 톨의 무게 
-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오순절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과 섬김이 모든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생명을 초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신앙을 갖는다.

생각하기

- 교회 안 신앙과 교회 밖 일상이 왜 달라질까요?
- 우리의 신앙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가요?
- 생태위기에서 성령의 하나 되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찾아보기

- [잘잘법] 내 신앙은 진짜일까(강영안) 
- '이주'와 '환대'로 성서를 읽어보면 어떨까 
- 『지구정원사 가치 사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2021

실천하기

- 타자와 피조물에 대한 '환대와 공감'을 나눈다.
- 성령으로 인해 이기적 존재에서 이타적 존재가 된다.
- 예배나 모임에서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한다.
- 주변의 나무, 동물 등 학대, 소외를 환대로 실천한다.
- 예수님의 환대와 공감은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한다.

찬양하기

- 공감하시네(WELOVE) 
- 예수님의 환대(#카르디아) 






추수감사절 및 창립주일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이며, 창립 주일은 교회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다.

생각하기

-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설정한다.
-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 탄소 중립사회와 생태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한다.

찾아보기

- 생태적 교회 건축은 생태적 삶으로 완성 
- 영성, 자연, 문화의 삶을 일구는 쌍샘자연교회 
-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예스하이즈) 

실천하기

-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고마움을 회복한다.
- 생태 감수성을 위한 예배와 교회 교육을 진행한다.
- 교회 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생태도서관을 만들어본다.
- 교회공동체에서 텃밭을 만들고 녹색식물 키우기를 진행한다.
- 기후위기에 대해 교회와 지역 사회의 연대 방안을 생각한다.

찬양하기

- 감사(지선) 
- 운동주, 새로운 길(MV 김응교) 





우리 교회의 환경주일

한국교회는 1984년부터 6월 첫째(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왔다. 환경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생태적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예배한다.

생각하기

- 교회는 자연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한다.
- 환경 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는 예배를 생각한다.
-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함께 참여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한다.



찾아보기

- 『그린 엑소더스』 이진형, 삼원사, 2020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과정 

실천하기

- 교인들과 함께 환경주일 예배(설교, 기도, 찬양)를 기획한다.
- 강단색은 녹색으로 하고, 꽃장식 대신 화분 장식을 한다.
- 환경 주일 식사에는 육식이나 가공식품을 내지 않는다.
- 예배 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다.
- 기후를 위한 헌금 혹은 몽골 은총의 숲을 위한 헌금을 한다.

찬양하기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래 환경다큐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미스터부우 환경송 모음 



환경 주일 예배안

*공동체 묵상의 기도

깊고 큰 숨으로 호흡, 새와 자연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예배의 부름

인도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은,

교 우: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어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함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인도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

교 우: 마음을 다하여 참되게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69장)

참회와 치유의 기도 다같이 (오감을 통한 기도)

공동체의 신앙고백 환경 주일 신앙고백

아이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부 특송

함께 읽는 글 자연의 시 한 편(예: 하늘은 얼마나, 변질환)

환경 주일 공동체 기도 맡은이

영상 편지 기후위기(환경)에 대한 짧은 영상

오늘의 말씀 맡은이(성경의 말씀)

찬 양 찬양대

하늘 말씀 퍼기 (담당 목사)

말씀의 새김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찬송과 봉헌 참 아름다워라(478장)

환경 주일 선언문 교회가 만드는 환경주일선언문 낭독

교회이야기 인도자

***다짐과 결심의 찬양 다같이**

1傳(전, 생명 존중의 삶) 1素(소, 소박, 절제의 삶) 1感(감, 감동과 배려의 삶)

***축도 옆 사람 손잡고**

* 이 예배는 녹색교회인 쌍샘자연교회의 환경주일 예배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 매년 소개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환경주일 예배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생태 문명을 열어가는 예비

여는 이야기

생태 문명을 열어간다는 말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져 가는 우리 자신과 시대를 구원하고 이끌어 갈 하나님을 예비로 찾고 구하는 것이다. 불만족해서가 아니라 안주하여 침체 되지 않게 살아 역사하는 예비가 되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예비도 있습니까?

한번은 성 크리스소스툼이 자기 교구 내의 동떨어진 곳을 방문했다.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인데다가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농부를 최선을 다해 교육시킨 다음 사제로 세우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온 뒤로 마음이 불안했다.

“자격도 없는 자를 내가 잘못 사제 자리에 앉힌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몰래 예비 시간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그는 기둥 뒤에 숨어 이 농부 사제가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나왔다. 그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짧은 설교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열광적으로 빛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예비가 끝나자 성 크리스소스툼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농부 사제에게 축복해 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농부 사제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교인 것을 알자 깜짝 놀랐다.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십니까?” 주교가 대꾸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소.” 그러자 그 무식한 농부 사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던 말씀인가요?”

〈승리하는 신앙〉 - 리처드 범브란트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의 시대, 우리는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예배를 만들어가야 한다.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맑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담긴 예배에 대해 이야기 한다.






생태적 감수성을 담은 시적 예배

생태적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는 시인이 되어 예배한다. 자연과 성경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함축되고 간결하지만 깊고 높은 예배의 세계로 나아간다.

생각하기

- 오감으로 자연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 사람의 마음은 어떤 갈래들이 흐르는지 이야기한다
-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찾아보기

- [한겨레] 생태인지 감수성(강우일 주교) 
- 권정생의 동화와 노래 
- [EBS] 도시인의 생태감수성을 깨워라(김산하) 

실천하기

-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한다.
- 생태 감수성에 대해 설교하고 교육한다.
- 숲, 강, 들레길 등에서 걷기 목상을 진행한다.
- 환경을 생각하며 한 줄 시를 쓰는 시간을 갖는다.
- 창조 세상과 자연을 담은 시편 읽기를 한다.

찬양하기

-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동요 
- 힘내라 맑은 물(홍순관) 







생태 정의를 회복하는 예배

기후변화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는 정의로운 전환이 예배와 삶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생각하기

- 생태 정의란 무엇인가?
- 창조세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예배에 자연과 계절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기

- [KBS] 플라스틱 섬 
- [기환연] 생태정의 소책자 함께 읽기 
- 생명 평화는 생태 정의/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 [세바시] 기후난민 대신 기후 시민이 되어주세요 

살천하기

- 생태위기는 국경, 인종, 종교, 빈부를 넘어 발생을 이해한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 생태적 부정의가 무엇인지 설교하고 교육한다.
- DMZ와 같은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을 탐방한다.
- 교회는 예배에서 생태적 참회와 고백한다.

찬양하기

-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홍순관) 
- 천지창조(송정미)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기 없는 예배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탄소 제로를 위한 검박한 생활과 불편한 삶을 예배에서 실천한다.

생각하기

-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한다.
-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하나?
- 탄소배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배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찾아보기

- 탄소배출권, 탄소세, 탄소 국경세(#KIEP)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부) 
- 탄소발자국 계산기 

실천하기

- 교회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교회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한다.
- 전기 없는 예배를 기획한다.
- 탄소 금식 실천을 생활화한다.
- 소박하고 겸손하며 절제하는 예배를 생각한다.

찬양하기

- YNC 2019 환경주일 영상 
- 조율(한영애) 






창조세계 희년을 향한 자연으로 들어가는 예배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할 때 희망을 얻고 자유롭다. 창조세계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지구의 평화와 기쁨이 살아난다.

생각하기

- 성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생각한다.
-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것이 주는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찾아보기

- [EBS다큐프라임] 왜 세상은 불공평할까 
- [CBS] 한국희년재단설립(소외 배제 없는) 
- [CBS] 토지는 하나님의 것 희년 함께 

실천하기

- 희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한다.
- 희년을 향한 예배에 자연의 모습을 담아본다.
예: 새 소리, 바람 소리, 물의 촉감, 나무질감을 살린 묵상
- 웃은 소박하고 간편하게 입고 모든 장신구를 벗어놓는다.
- 자연의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들의 꽃, 공중의 새)
- ‘모든 것이 제자리로 귀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한다.

찬양하기

-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 
- 창조의 목적으로(정성실) 





생태적 삶의 나눔이 있는 예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태적 삶을 살기 원하시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그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생각하기

- 지금 우리의 삶은 생태를 떠난 삶이 아닐까?
- 모든 에너지, 양분, 필요가 자연에서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인간의 몸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중앙북스, 2015
- 도시에서의 생태적 삶(10회) 
- 인사이드인 생태학자 최재천 1편 

실천하기

- 생태 관련 도서와 영화를 보고 소모임을 한다.
-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예배에서 나눔을 가진다.
- 생태 문명의 전환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찬양하기

- COVID-19 다시 부르는 상록수 2020 
- 소우주(BTS) 
- 힘내라 맑은 물(홍순관) 





생태적 회심을 위한 성만찬

성만찬은 주의 십자가만큼 신비롭고 은혜롭다. 생태적 회심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성찬에서 가능하다.

생각하기

- 한 식탁의 밥을 나눔은 어떤 의미와 가치인가?
- 예수의 무엇이 떡과 잔에 담겼을까요?
-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됨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기

- 환경주일 감사 성찬례(대한성공회전주교회) 
- 세계 성만찬 주일(올타리 넘는 연합예배) 
- 『성찬: 하나님 나라의 성례』 알렉산더 슈메만, 터치북스, 2021

생태적 회심을 위한 성만찬 실천하기

- 성만찬의 상(식탁)은 소박하지만 특별하게 꾸민다.
- 떡과 잔을 담을 그릇을 도자기로 준비한다.
-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장영란 시)를 읽는다
- 생태적 성찬에 대해 생각하며 유기농 성찬을 준비한다.
- 생태적 회심을 갖도록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가진다.

찬양하기

- 주님의 성찬에 오레브(O.LAB) 
- 성찬의 식탁으로(예배자의 노래) 

3. 간절한 마음, 거룩한 기도

반성

- 함민복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함민복, 〈노래는 최선을 다해 곡선이다〉, (문학동네, 2019)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너 없이 나 또한 없음을 왜 몰랐을까요.
간절한 마음, 거룩한 울림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 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 자연의 존재보다는 인간존재를 위한 이
기심이 생태위기를 불러왔다. 생태적 회개와 성찰을 위한 기도를 통해 창조세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1)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



‘참 좋다!’,

경탄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모든 생명이 창조주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며 살아갑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 생명의 숲을 이루고, 서로를 보듬으며 주인의 숨씨와 거룩한 뜻에 하나가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과 은총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 갈 거룩한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신 그 귀한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편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 살림과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창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청지기의 삶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낮과 밤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에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과 땅, 우주의 신비와 녹색 지구별에 대한 기쁨을 가득 안고 살게 하소서. 크고 웅장한 대자연의 힘과 함께 작고 낮은 수많은 생명의 위대함에 놀라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제 숨을 쉬며, 충만한 존재로 세상에 머물며 살다가 하

나님의 부름에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생태적 회개를 위한 기도

맑고 푸른, 하늘과 같으신 하나님,
그런 하늘과 그런 세상을 매일 보며 살아야 할 이 땅이 어둡고 탁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심각하게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깃뺏은 숲과 자연은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망가트렸고 빼앗겼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주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 물론, 못 생명과 존재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도시 문명의 삶에서 자연은 모든 것을 품고 쉬어 주며 생명의 기운을 되찾아 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만 더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며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선택임

을 믿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요, 이 땅의 흙과 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미래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생명과 자연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기후로 신음하는 자연을 위한 기도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후위기의 시대, 생명의 다양성을 생각하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교회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지금처럼 위협을 받고 위기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조금 더 편리하고 자신만 생각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욕망의 선택이 오늘 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류는 화석연료를 경쟁하듯 태웠고, 온실가스는 못 생명들을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먼저는 약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마침내 모든 생명과 인류는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파괴된 창조질서와 이상 기후로 피조물은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눈앞의 욕심과 편리함에 눈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
 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자연과 모든 생태적 존재가 숨을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존재가 곧 자신임을 알아차리
 게 하소서.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가 단출한 행장으로 앞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고통받는 동물을 위한 기도



생명의 하나님,
 산과 산이 어깨를 걸고 물과 물이 손을 잡아 흐르며, 세상의 수많은 것이 서로 어울
 리며 살게 하셨고, 자연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
 셧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충만하고 더함도 덜함도 없는 부분과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
 이요 숨씨입니다. 산과 강의 조화, 동물과 식물의 어울림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
 니다.

자연의 세계는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다르지
 만 함께 어울려 조화와 균형이 있는 세상을 향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며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사람의 욕망에 벗어난 게 없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작은 우리에게 간혀 고통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동물들 또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그들의 목숨을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노아의 방주에 함께 구원을 받은 동물들을 생각하며 돌보고, 동물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하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지구를 위한 기도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못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는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남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 있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것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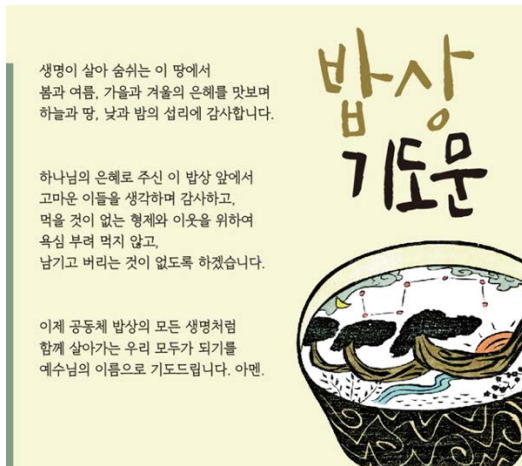
지구의 아픔을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지구의 상처가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소서. 너무나 작아진 지구, 너무 함부로 다룬 지구, 인간의 욕망이 잠시도 멈춘 적이 없는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져나가 온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가 되어, 다시금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소서. 큰 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외기도자료

- 창조절 안내서 공동기도문 (Season of Creation)
 켈리 셔먼 콘로이 “창조 기념하기: 토착민들을 기리며 외(外)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ww.kncc.or.kr)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생태정의를 위한 기도 (www.greenchrist.org)



출처 : 쌍샘자연교회 생명 밥상 기도문

4. 생명의 숨, 더불어 숨이 되는 교회

여는 이야기

<00 교회 생명자연위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녹색의 은총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모든 걸 충만하고도 신성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바람, 비와 햇빛의 아름다운 조화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온몸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과 부분들이 커다란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쪽이 아프고, 부분이 병들면 서로에게 전해짐을 압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 되기에 치유와 회복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생명과 자연, 부분과 전체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신앙과 생명으로 자연의 세상을 보게 하시며,

소박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순기능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작고 드러나지 않은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과 다르기에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숨을 쉬는 성도가 되고,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첫 마음을 살피며 가겠습니다.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과 자연의 생명을 사랑하며 돌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녹색교회로 전환하기

생태교회는 예배나 생태교육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이 녹색 지구를 닮은 교회로 변신하고 거듭나야 한다.

생각하기

- 건물의 공간, 물건, 배치 등이 생태적이어야 한다.
- 녹색 지구를 닮은 교회가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인가?
- 교인과 함께 녹색교회의 실천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찾아보기

- KBS 다큐, 독일 프라이부르크 환경도시로 
- [환경부] 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을 
- [기환연] 왜 교회는 생태적이어야 할까요? 

녹색 지구를 닮은 교회로 변신하기

- 공간의 전등을 LED로 교체.
- 교회에 대안(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한다.
- 교회의 외벽에 녹색 커튼(벽을 이용한 화분)을 활용한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교회의 통로, 로비 등에 녹색 서재(생태 책)를 만든다.
- 담장 허물기, 빗물 저장함, 흙 놀이터, 녹색 숲 조성.
-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다.

찬양하기

- 열공뮤직, 생태계의 구성, 과학송 
- 그린 엑소더스, 회색에서 녹색으로 기환연 






교회 안의 곳곳이 자연 친화적 환경되기

예배실과 교육 공간, 기도실, 식당, 휴게실 등 교회의 모든 곳이 생명의 숨이 있는 생태 자연의 공간이 된다.

생각하기

- 공간의 물건 하나, 소품 하나가 주는 기운이 있다.
- 자리와 공간이 주는 울림과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
- 함께 만들어 가는 곳으로 토론과 이야기를 나눈다.



찾아보기

- 생태적 공간, 생태 통로(국립생태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 공간은(유현준) 
- 교회공간이야기, 걷고 싶은 교회(극동방송) 

녹색 지구를 담은 교회로 변신하기

- 교회의 공간, 소품 등을 계절을 느끼도록 배치한다.
-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대와 우정의 생태적 공간으로 만든다.
- 생태와 자연을 담은 시, 글귀, 성경을 액자에 활용.
- 교회 입구(로비)에 큰 지구본을 함께 만들어 놓는다.
- 자연학교, 녹색교회 탐방, 생태 달력 등 함께 만든다.
- 생태교회 위원회를 만들고 교회와 이웃 사회가 연대한다.

찬양하기

- 매일 기도, 아름다운 동행을 
-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생명살림콘서트 






생태 목회를 위한 제안하기

세상은 코로나 이후 시기라고도 하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도 한다.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생태적 교회여야 한다.

생각하기

- 생태 목회는 생명과 존재, 평화와 공생을 말한다.
- 자연의 시간(크로노스)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이해한다.
- 인간 중심에서 생태와 자연, 모든 피조물과 함께한다.



찾아보기

- 그린 엑소더스, 절망에서 희망으로 
- 녹색교회아카데미 녹색신앙과 생태신학 
- 새해에는 생태 목회에 도전해 보세요 

녹색 지구를 닮은 교회로 변신하기

- 환경, 생태, 자연에 대한 말씀(메시지)을 자주 나눈다.
- 교회 안에 환경 위원회와 공부하는 모임을 만든다.
- 생태교회, 녹색 목회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한다.
- 환경주일과 창조절, 교회 창립 주일 등의 예배를 기획한다.
-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
- 생태 목회나 녹색교회 탐방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찬양하기

- 꽃들도 제니퍼 전(영은) 
-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CCM Playlist>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PART

2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이론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교회교육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 초대교회부터 교회교육에 대한 물음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육은 디다케(Didache)로 대표됩니다. 헬라어로 디다케(Διδάχη)는 가르침, 교훈을 뜻합니다.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은 디다케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와 같은 교리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의 윤리, 예배, 율법 등 다양한 교회의 교리들을 정리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디다케는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교회공동체들의 신앙실천이 담겨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교육은 그 신앙공동체의 삶과 시대를 반영하여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앙의 목표이고 행동지침이 됩니다.

교회교육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현실에 대한 반성 속에서 형성되는 실천(Praxis)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생태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생태위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환경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등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과학적 현실을 교육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독교생태교육의 교육과정과 실천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구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는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생태교육 문서들을 통해 기독교생태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주제를 살펴봅니다.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기독교생태교육은 각 교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실천매뉴얼은 단순히 기후위에 대응하는 실천방법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생태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태적인 신앙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삶과 세계관을 전환하는 통전적인 교육으로서 교육철학과 이론적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현실과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교육하는 것은 신앙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IPCC의 지구보고서와 세계교회의 참여

세계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30년 전부터 기독교생태교육의 단초를 모색해왔습니다. 1990년, IPCC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시나리오로 정리한 제1차 기후변화 지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PCC는 국제연합(UN)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협의체입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과학적인 연구결과로 발표하면서 세

계교회도 전 지구적 흐름에 동참해 생태문제를 가장 중요한 선교 및 교육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WCC는 IPCC가 1차 지구보고서를 발표한 1990년, 서울에서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대회를 열고 세계교회가 기후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발표했습니다. JPIC 대회의 발표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선교주제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결정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시기부터 세계교회도 국제사회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한 지구보고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1990년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1년 6차 보고서까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이상현상을 시나리오로 발표했습니다. 각 보고서들은 3천 여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와 대응방법을 전 세계 시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고 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교회의 긴급행동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가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 1.5℃ 특별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악화된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1.5℃로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1년 8월 발표된 IPCC 6차 지구보고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온상승을 1.5℃로 막아야 할뿐만 아니라, 2018년 발표된 1.5℃ 특별보고서의 시나리오보다 더욱 급격하게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원인

에 대해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전보다 명백하게 명시했습니다. 이 6차 보고서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인류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보고서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후 0.86°C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6차 보고서는 지구기온 상승이 1.1°C로 확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구기온 상승이 1.1°C라는 것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이가 50°C에 달하기 때문에 1.1°C 기온상승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는 것 입이다. 하지만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1.1°C 상승했을 때 폭염과 가뭄, 폭우와 폭설 등, 10년에 한번 발생하던 이상기후 현상들이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곡식재배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기온이 1.5°C나 2.0°C로 상승할 경우 인류문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속에서 기후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더욱 급격하게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더욱 확실하게 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후위기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이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야하는지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시나리오는 실무그룹 2, 3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차 보고서의 의의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의 화

석연료 문명을 전환해야한 다는 경고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인류가 기후위기의 대응을 넘어 적응이나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이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지구보고서를 숙지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함을 강조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녹색종교개혁 교육문서

지구의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배출은 기후과학의 문제이지만, 인류의 미래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기후 임계점인 1.5°C를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생태교육을 진행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수년 안에 우리 삶의 큰 위협과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 받는 약자들에 대한 생태정의의 문제로 읽혀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떤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신앙적 물음을 갖게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해 기독교생태교육을 진행해야 할까? 세계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운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며 기독교생태교육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2019년 5월, WCC는 기독교생태교육과 관련된 '녹색종교개혁'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의 중심내용은 세계교회들이 지향해야할 "생명과 생

태정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로드맵”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오늘날 교회와 창조세계가 직면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생태교육의 로드맵 ‘녹색종교개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웃과 연대하여 지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표된 녹색종교개혁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로서 기독교생태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생태적 세계관을 성숙시키기 위해 기독교생태교육을 각 개교회의 삶의 자리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러한 학습과정에 참여하도록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계속해서 대화해야하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생태담론을 통해 성서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읽어야 합니다. 생태학과 성서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과 세계(oikoc)를 중심으로 성서의 텍스트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서읽기를 신학은 생태학적 해석학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는 생태학적 해석학을 통해 성서를 반성적으로 읽게 됩니다. 즉, 기존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인간사회를 넘어서는 확장된 세계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 모든 이웃 생명과 세계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생태신학과 소수민족의 이야기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마을단위를 살아온 소수민족의 전통과 맥락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이야기는 한국교회에는 낯설게 다가오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나, 히말라야 기슭의 티벳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많은 전통들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창조의 삶과 그 그물망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웃종교 공동체의 지혜는 기존의 교회 교리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해석학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교육은 생태적 예배 참여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생태교육은 교회가 창조섭리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신앙인과 연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는 강력한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이 친환경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학교육과 기독교교육에 생태학을 포함시켜 예배를 생태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교육에 생태신학과 생태학을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태파괴에 응답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늘어나도록 생태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생태교육이 환경문제의 지식전달에 머무르거나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교회공동체가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생태적 깨달음과 사회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통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과 생태정의를 위한 교회 공동체 로드맵을 각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학을 연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방법론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생태교육

지금까지 살펴본 녹색종교개혁의 로드맵은 원론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기독교생태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생명살림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기독교생태교육이 어떤 기초이론과 생태학적 토대, 신학적 토대를 갖춰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각 교회단위에서 신학적 전통과 토대위에서 구체적인 기초이론을 형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독교생태교육의 기초는 공동체의 역사와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후 필요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을 검토하고 각 지역과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기독교생태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론과 기초는 신앙의 근본적인 성찰과 생태적 지혜를 마련하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독교생태교육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계를 성찰하는 것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로 연결된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사물화 하여 착취하고 생명을 죽이는 산업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가져왔고 생명으로 온전히 통일된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지구의 생명 공동체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생명의 희생과 도움을 바탕으로 생

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위한 희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지구공동체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망 속에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생과 섬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은 생명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생명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살기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의 측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인간만을 위해 타자의 생명을 착취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문명은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생태교육은 인류가 그동안 단절했던 자연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생명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소외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생명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생태교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생태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웃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은 생명살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예수그리

스도의 삶을 따르며 기후위기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고백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육 되어야 할 기독교생태교육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기독교생태교육의 신앙적 기초와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하면서 각 개교회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생명살림은 이론이나 철학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기독교생태교육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실천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은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구조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부 생태교육’과 ‘청·장년부 생태교육’, ‘수련회나 캠프 등의 특수한 교회프로그램의 생태교육’,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생태교육’으로 실천매뉴얼을 구성했습니다. 이 실천매뉴얼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실천 •

1. 어린이 청소년 생태교육

교회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단일부문 건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산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매우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2020년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97%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4명중 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어, 개 교회에서의 생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은 물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회학교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은 다음세대 교육에 필수요소가 되어야 하며, 교회를 통해 배우고 습득한 실천이 가정과 일상으로 연계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 교회학교 특별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 디지털 탄소발자국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직전인 2007년에만 해도 전체 탄소발자국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2018년 3배로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 되면 2040년에는 14%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큼 지구를 병들게 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몇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화단 만들기

-농촌진흥청은 2021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나무심기에 주목하던 탄소절감 방안에 대한 보완으로 잔디처럼 건물 옥상이나 벽면, 맨땅을 덮기 위해 심는 ‘지 피식물(地皮植物, groundcover plants)’의 탄소절감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는 200㎡(약60평)정도의 화단을 통해 연간 600kg의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그만 화단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 다회용기 사용하기

-배달 앱의 활성화와 비대면 활동이 더해져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의 7-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포장해 오는 실천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디지털 탄소발자국?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며 이때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인터넷 검색 = 0.2g
 이메일 한 통 = 4g
 전화 통화 1분 = 3.6g
 데이터 1MB 사용 = 11g
 <출처: 환경교육포털>




함께 모여 이메일 삭제하기

1. 읽지 않는 뉴스레터 구독 취소
2. 스팸 메일 차단
3. 불필요한 메일 완전 삭제




안쓰는 휴대폰 기부하기

디지털 기기의 재활용은 자원 절약과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파괴를 줄일 수 있다.



비디오 자동 재생 차단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기기의 앱이나 브라우저에서 설정에서 자동재생을 중지하세요.



친환경 검색엔진 사용하기

에코시아(<https://www.ecosia.org>)를 사용하기

- 에코시아는 온라인 검색을 통한 수익을 나무심기에 지원하는 검색엔진임.

관련 영상 | 디지털 탄소발자국 <https://youtu.be/KMZV8rg19dc> 

폐휴대폰 자원화 | 배출대상-본체, 배터리, 충전기

참여방법 | <https://나눔폰.kr/info> *착불 택배발송 가능.

지피식물 화단 꾸미기

지피식물이란?

지피식물은 토양을 덮는 키 50cm이하의 식물로 옥상이나 화분 등에 식재 할 경우 비교적 높은 탄소 흡수율로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
-박하, 구절초, 붓꽃 등
*200㎡ 식재 시
-연간 600kg 탄소 흡수
<출처: 농촌진흥청>



*식목일 혹은 환경주일 특별 활동으로 교회화단 꾸미기

창조질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의 광합성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은

<포 퍼밀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는데, 식물 광합성을 통해 매년 0.4%씩 탄소를 줄이자는 운동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피식물 관련 자료 | http://www.nihhs.go.kr/usr/nihhs/news_Press_view.do?dataNo=100000773623 (농촌 진흥청) 

포 퍼밀 이니셔티브 | (4 per 1000 Initiative)

참고영상 | 제6회 흙의 날 기념식 - 농림축산식품부 

용기내기!

용기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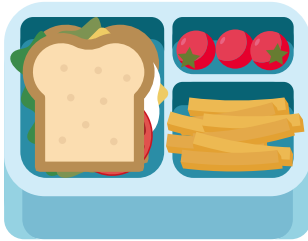
용기내! 캠페인은 음식 포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다회용기를 들고가 포장을 해오는 캠페인이다.

*음식 포장에 1인분 기준 평균 3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가 발생한다.


코로나 여파와 배달 앱의 활성화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8% 증가하여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교회학교 2부 활동으로 다회용기에 간식을 포장해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고영상 | [하나뿐인 지구] 플라스틱 인류_#1 

참고도서 |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 허유정 

2. 청·장년을 위한 생태교육

기후 위기 시대?

아열대기후 지역인 태국과 인도북부, 이집트 등에서 이례적인 폭설이 관측되기도 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저온/고온, 폭설,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자연재앙이 빈번해지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입으며 기후변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전염병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4년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 과제가 되었는데, 기존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탄소중립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 분리배출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되고 분리수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분리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리배출 핵심 - '비우기, 행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

◎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사회적 운동이다. 플라스틱, 비닐봉투 등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프리사이클링이란, 미리를 뜻하는 접두사 'pre'와 리사이클링을 합친 합성어로, 쓰레기를 사전에 줄인다는 의미다. 즉 사용 이후의 재활용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며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1회용 휴지 대신 손수건을,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다.

◎ 의식 있는 의류소비 (컨셔스 패션)

컨셔스 패션이란? '의식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다.

트렌드에 따라 계속 바뀌며 오랜 세월 '자원 낭비'의 주범인 패션은 대량의 쓰레기를 생산하고 염색 과정에서의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소재 선정에서부터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의류를 소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 온/쿨 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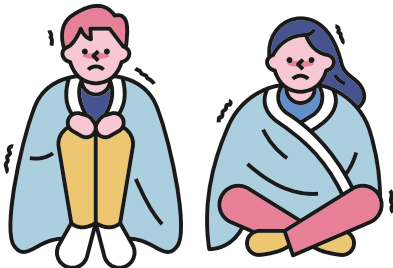
더운 여름철 넥타이와 재킷을 입지 않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를 2℃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내복 등을 챙겨 입는 '온 맵시'로 체감온도를 2.4℃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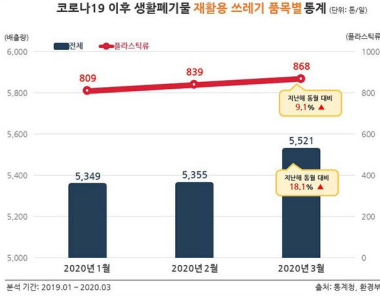
과도한 냉·난방은 에너지 낭비는 물론 각종 질환(호흡기, 피부, 눈 등)의 원인이 되는데, 비교적 잘 알려진 여름철 '냉방병'은 물론 겨울철 '난방병'도 주의해야 한다.

'난방병'은 '밀폐건물증후군'의 일종으로 겨울철 과도한 난방과 건조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

냉방병만 알고 계세요? 난방병도 조심하세요!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출처: 통계청, 환경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4 가지 원칙



1 비운다
용기 속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자!



2 헹군다
용기에 남은 이물질 등을 헹구자!




3 분리한다
리튬, 뚜껑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하자!



4 섞지 않는다
재질별,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하자!

분리배출 핵심 4가지

참고영상 | 분리배출 핵심 4가지 #종합편 -환경부 

<교회에서>

1. 불필요한 종이 간행물 소식지 등 받지 않기
2. 종이 고지서 받지 않기
3. 전자문서, 이면지 활용
4. 분리배출 장소 마련하기
5. 분리배출 담당자 정하기
6. 쓰레기 배출량 고지하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

· 효율적인 재활용쓰레기 분리를 위한 앱을
· 사용하여 습기로운 분리배출 생활을 해보세요!



설치방법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검색

2.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다운로드

· 오프라인 배출요청 설정
· 총 2,290건의 Q&A
· 재활용 분리배출 종류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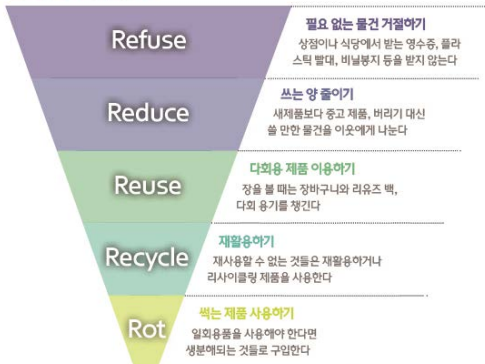
*올바른 분리수거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활용

출처: 내손안의 분리배출

제로웨이스트

실천방안	CO ₂ 저감량(연간)	비용절감효과(연간)	나무식재효과(연간)
종이청구서를 이메일·스마트폰으로 바꾸기	0.3 kgCO ₂	-	0.04 그루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10.5 kgCO ₂	-	1.6 그루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3.5 kgCO ₂	-	0.5 그루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2.5 kgCO ₂	-	0.4 그루
수입식품 사용 10% 줄이기	16.7 kgCO ₂	-	2.5 그루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36.2 kgCO ₂	-	5.5 그루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캔 등 분리배출하기	88 kgCO ₂	-	13.3 그루
절수기기 사용 늘리기	18.9 kgCO ₂	35,547원	2.9 그루
피부건강을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6.6 kgCO ₂	12,838원	1 그루
물을 받아서 설거지 하기	4.8 kgCO ₂	9,642원	0.7 그루
합계	188kgCO₂	60,027원	28.44 그루

제로웨이스트 실천법 '5R'



비즈니스이 '제로웨이스트 학개론'에서 제시한 '5R 원칙'

1. 쉽게 버려지는 전도용품 지양하기
2. 교회 안에 제로웨이스트 물품 비치하기

컨서스 패션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패스트 패션(최신 유행하는 의류를 짧은 주기로 생산 판매하는 방식)의 영향으로 세계에서는 매년 1,000억벌 이상의 의류가 만들어지고, 생산된 6,000만 톤의 옷과 신발 중 70%는 버려진다.

패스트 패션은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엄청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가져온다.



*청바지 1벌 제작 시 : 7,000~11,000L 물 사용

*티셔츠 1장 제작 시 : 2700L 물 사용

*면의 재료인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 전 세계 농약의 10%가 소비된다



1.교회 내 나눔 공간 마련하기 (나눔 행사 진행하기)


2.안입는 옷 기부하기 (공동세탁과 공동발송 작업)

안입는 옷 기부하기

 아름다운가게 | beautifulstore.org

 OTCAN | otcan.org

 구원스토어 Goodwill Store | miralgoodwill.org

참고영상 |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2편 슬로우패션 

온/쿨 맵시

*쿨 맵시

넥타이 매지 않기, 반팔셔츠, 재킷 입지 않기 등

*온 맵시

옷 겹쳐 입기, 내복 입기, 목도리장갑, 무릎담요 사용 등

1. 실내 적정온도 유지

2. 무릎담요 등 비치하기

3. '온 맵시' 광고하기 ex) 대림절부터



쿨맵시란?



쿨(Cool) +



맵시 = 쿨맵시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복합어예요!

쿨맵시 효과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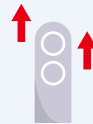
냉방설정온도 +2
피부온도 -2



공공·산업 부문에서 연간 186천톤 CO₂ 감축
= 30년생 소나무 약 17,000 그루의 식목효과



쿨맵시 적정 실내온도 26~28도
지나친 냉방에 의한
방위제력 저하 및 냉방병 예방



*예배 순서 맡은 이들이 앞장서 '쿨 맵시' 실천하기 ex) 맥추감사절 부터 쿨 맵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여름 최대 26°C, 겨울 최대 20°C)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온/쿨 맵시 실천으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참고영상 |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 환경부

3. 교회학교/ECO 캠프

ECO 캠프

많은 신앙인들이 탄소중립 실천의 어려움으로 ‘첫걸음’을 때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회학교에서 주최하는 친환경적인 캠프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자연스럽게 경험해보고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현수막 사용 줄이기

-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며 매립 시에는 화학염료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이 된다.

가장 많은 현수막이 사용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각종 선거에 사용되는 현수막 허가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현수막의 후처리와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 채식밥상

-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5억7000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고, 이 소들은 연간 약 1억500만~1억8000만의 메탄을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21년 4월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채식급식’을 시행하는 등 사회전반에 채식식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 남태평양의 팔라우와 태평양 최대 휴양지 하와이에서는

2020년부터 옥시벤존·옥티노세이트 등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성분이 산호초의 백화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여름철 야외활동 특히, 수중 활동 시에는 선크림의 성분을 확인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 1 물리적 자외선 차단 선크림 = 무기자차 선택하기**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유기자차에는 피부 건강과 바다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2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 확인하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자 환경호르몬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바다에 녹아들어가면 산호초를 백화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해요. 화장품 라벨 혹은 '시선.net'에서 두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3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효과도 충분하지 않고,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로션이나 스틱형 선크림이 더 좋습니다.


- 4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입자. 피부에 흡수되거나 흡입하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신경계와 뇌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 5 '향' 성분 꼼꼼히 확인하기**

화장품에 포함된 향료는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내가 쓰는 선크림에 향료 성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출처: 환경운동연합

재활용 종이현수막 만들기

처리 방법	특징	처리실태
매립	50년 이상 현수막에 사용된 염료로 인한 토양 오염	1% 이상
소각	합성수지에 의한 다이옥신 ,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등 배출(환경오염) 목재, 플라스틱 고형폐기물을 태우면 미세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같은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 발생 잉크 성분이 악취를 내뿜고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 소각비용 통당 20만원	80% 이상
Upcycle	업사이클 제품의 수요가 적고 비싸서 극히 일부만 업사이클	최소 12%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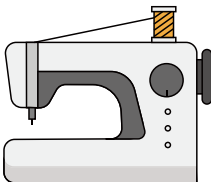
(출처: PLA코리아)

현수막은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 등이 발생하며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토양의 오염원이 된다.

*교회는 현수막 주사용처 가운데 한 곳이다.



*캠프를 알리는 기존의 현수막 대신 재활용 종이를 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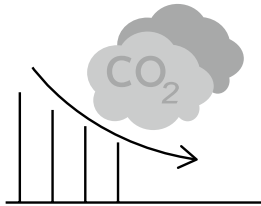
교회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 등을 만들 수 있다.

관련 영상 | 불법현수막으로 착한 에코백 만들기 

채식밥상꾸리기



조너선 사프란 포어 (Jonathan Safran Foer)는 『우리가 날찌다』라는 책에서 만약 전 세계에 소들을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중국,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3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이산화탄소
2268 Kg 감소



연간 물 절약
13만 2400L

캠프 중 한 끼 혹은 하루를 채식밥상으로 꾸려 탄소발자국과 물 발자국을 함께 줄이는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한 끼 밥상의 탄소발자국 계산기 | 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story/story03_1.jsp

물발자국 계산기 | <http://thewaterinyourfood.site>

참고영상 |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1편 기후 미식

선크림 사용 자제하기

백화현상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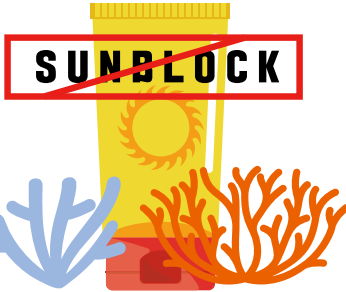


- ☑ 산호는 촉수를 가진 동물의 한 종류
- ☑ 선크림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은 산호의 내분비를 교란해 기형을 유발
- ☑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도 백화현상 심화에 한 몫
- ☑ 매년 약 6000-1만 4000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해안으로 배출

*국제 학술지 '환경오염과 기술 아카이브'(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

선크림의 주요성분은 산호초 백화 현상의 원인이 되며, 바닷물에 녹아든 선크림은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수중 활동 시 선크림은 화학성분이 적은 <무기자차> 제품을 사용한다.



야외활동 시 긴 팔과 모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크림 사용을 줄이고 선크림 사용 시 '무기자차' 용품을 사용한다.

참고영상 | 여름 필수품 선크림이 하와이 산호초 초토화시킨 이유

무기자차 천연 선크림 만들기 레시피

4.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생태교육

교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기관을 통해서 체계화된 교육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으며 강사파견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 참가하여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할 수도 있다.

더불어 지역의 환경단체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요구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여 연계 활동을 하는 것도 교회의 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에 필요한 과제이다.

◎ 기독교 환경·생태운동 전문기관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2곳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와 [기독교 환경교육 센터_살림]이다.

이 두 단체는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교회 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교육 자료와 더불어 절기에 맞춘 예배문과 기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각 교단에 설치된 관련기관(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농어촌환경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기후위기 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과 ‘녹색연합’ 대표적인 활동단체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단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단체를 통해서 현재 지역에서 가장 요구되는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교회와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외부 전문기관 활용

1학기			2학기		
차수	날짜	강의주제	차수	날짜	강의주제
1강	3/9	한국 환경정책과 생태정의	1강	8/24	생태신학과 생태정의
2강	3/16	기독교환경운동과 생태정의	2강	8/31	그린뉴딜과 생태정의
3강	3/23	세계 기후위기운동과 생태정의	3강	9/7	에큐메니칼 운동과 생태정의
4강	3/30	에너지전환과 생태정의	4강	9/14	한국 생태계 보존과 생태정의
5강	4/6	탈핵 운동과 생태정의	5강	9/28	노동과 생태정의
6강	4/13	여성신학과 생태정의	6강	10/5	동물신학과 생태정의
7강	4/20	중간 토론 및 나눔	7강	10/12	중간 토론 및 나눔
8강	4/27	생물다양성과 생태정의	8강	10/19	신약성서와 생태정의
9강	5/4	해방신학과 생태정의	9강	10/26	구약성서와 생태정의
10강	5/11	한국경제와 생태정의	10강	11/2	교육과 생태정의
11강	5/18	건강과 생태정의	11강	11/9	선교신학과 생태정의
12강	6/1	기독교 영성과 생태정의 /종합토론 및 방학식	12강	11/16	녹색교회와 생태정의 /종합토론 및 수료식

<예시 - 2021년 생태정의 아카데미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21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교사 리더십 과정**

일시 김의 제목과 강사

교회의 생태적 전환(회심) / 장유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1/13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과 지역사회 / 정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전환도시 디자인 / 박승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11/2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 / 조성민 (살신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 한재각 (기후활동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1/27 쓰레기제로 일상과 도시비전 / 김정지현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


마을을에서 하는 생태환경교육 / 박현정 (희망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

12/4 탄소제로 녹색교회와 지구물품서클 /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http://www.greenchrist.org>

 기독교환경교육센터 | <https://ecochrist.modoo.at>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

 녹색연합 | <https://www.greenkorea.org>

<예시 - 2021년 환경선교사 리더십과정 /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장으로

PART

3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이론 •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생태계와 문명의 위기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십여 년 전부터 극단적 가뭄, 홍수, 태풍(허리케인), 흑한과 흑서, 산불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를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겪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일련의 자연재해들 대부분은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많은 피해를 겪자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에도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자연재해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2020년에 호주 전역에 일어난 대형 산불, 202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8,600개 이상의 건물을 태운 산불, 남아메리카 파타나우 산불, 2021년 미국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의 산불 등은 지구온난화로 건조해진 지역들에서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은 홍수 역시 지구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이 근본적 원인이라 합니다. 2021년 여름에 미주와 유럽에서 이상고

온을 야기하여 수백 명 이상의 희생자를 만든 열돔 현상의 원인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바다의 온도 상승은 태풍 및 허리케인의 강도와 발생빈도를 강화시킬 것이고 극지방의 빙하는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붕괴되고 녹고 있어 홍수의 피해는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역에 있는 주요도시들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노아 홍수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홍수가 인간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오늘날의 기후 변화의 근본적 원인 또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개인의 욕심과 인간 문명의 탐욕적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벗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대홍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세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금의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와 동식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하고 구원 사역에의 부름에 선택받은 자들이 될 건가요?

이러한 물음에 잠정적인 해답이라도 얻고자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생태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를 교회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하며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선교사역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세계

교회의 선교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창조세계 보전의 방향으로 재정위 되기 위해서는 위기에 빠진 생태계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의 가장 기본적 고백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빼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해가 보다 쉽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 없이 자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자녀는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지만 자녀는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 없으며 부모는 여전히 존재의 의미로 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자녀 없는 부모의 삶도 생각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고나 병으로 안타깝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다시 말해 자녀 또한 부모에게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및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

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성서의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창조하는 날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만면에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이처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피조물 안에는 우주의 먼지부터 수많은 은하계까지 포함되며 지구로 범위를 좁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생태계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 창조신앙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생태계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의 기본 전제가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생태시스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작은 미물이라도 생태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생태계 내의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과 무생물들의 역동적 관계가 지구생태시스템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생태학의 기본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석하면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관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호 연결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연결의 구조를 통해 세계를 계속 창조하시고 운행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창조세계 보전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기존 선교방식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생태계가 어쩌다 이렇게 파괴되고 도리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의 인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류역사의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인간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은 개인의 갈등과 다툼을 넘어 공동체들 사이의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가 민족 및 국가 단위로 커져 영토 및 부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차등이 발생했고, 세계 역사는 큰 국가나 제국이 약소국가와 민족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로마에게 철저히 정복과 수탈을 당한 것이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중세이후 르네상스, 대항해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 국가들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특별히 근대과학은 자연을 기계로 간주했고 이는 인문주의와 인권사상의 발전과 묘하게 어울리며 인간만이 특별하며 인간이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다는 인간중심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인간이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까지도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열강제국들의 수탈과 정복이 판을 치는 야만의 시대에 유색인종, 노예, 여성, 아동, 피식민지인들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근대과학의 기계론적 자연이해가 산업혁명 및 자본주의 발달에 기초를 놓아준 것입니다. 인류는 인간의 편리한 삶과 이윤

을 위해 자연을 공장의 기계처럼 사용하였고, 노예처럼 부러먹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처럼 맘껏 정복하여 약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가득 찬 피조물들과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의 생태계의 파괴 및 기후위기로 이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인식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기독교가 이러한 인간 공동체 및 생태공동체 파괴의 역사에서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교회 공동체들이 이러한 파괴의 역사에 저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 목회자 및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땅 끝까지 복음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이를 위해 교회의 규모를 확장하고 교인수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물량주의적이고 정복주의적인 선교관이 근대 제국주의 확장 및 자본주의 발전과 시대적으로 연동되어 형성되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에 대한 자기 반성적인 식과 회개는 한국교회가 생태계 파괴 및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적 실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렇다면,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대에 새롭게 이해되는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말할 때 가장 기초적

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혼란 통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번째로 교회만이 선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라고 할 때 해외 선교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통념은 모두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영어 단어는 미션(mission)이고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 미테레(mittere)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mission)이라는 단어가 16세기 중반에 정착될 때 ‘성령을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리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이어 8절에 나오는 선교적 지상명령과 연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적 임무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근원적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선교의 근원적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신약에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과 사랑이 바로 선교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을 때 그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가장 분명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스림)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공생애 내내 사회적 약자였던 병자,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 취급받던 자들과 늘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주셨으며 부패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셨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아프고 소외되었으며 억압받는 존재들이 회복되는 세계이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 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창조세계의 목적은 피조세계에 대한 온전한 구원(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만의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위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지금도 멸절당하고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들이자 구하고 보호하셔야 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행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이 당연히 포함되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스림)의 회복과 성취에 있다면 선교는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사야 11:6-8)처럼 생태계 전체의 회복과 생명들이 조화롭게 뛰어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생태적 선교 개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삶의 영역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 생태적 선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태적 선교의 실천 방향: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위기 시대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생태적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의, 평화, 생명 그리고 기후위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이렇게 실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JPIC 프로그램, 즉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질서의 보전(Integration of Creation)'을 형성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PIC의 기초 개념은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대회에서 제안되었고 1990년 3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JPIC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 루터교세계연맹(LWF),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이 모두 참석한 범 기독교적 행사로서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천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주최한 것은 의미가 큼니다. 당시에 세계 곳곳은 독재와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민중(people)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반면에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화, 민주화 흐름으로 냉전 종식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환경문제가 지구촌 전체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중심이 서구를 넘어 비서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민주화(1987년 민주화), 평화(분단국가로서 냉전의 상징), 사회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낳는 물질문명(개발도상국의 상징)의 상징성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를 부산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라는 10차 총회의 주제는 JPIC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온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 정의, 평화라는 메시지는 지구촌 곳곳의 생명이 파괴되고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불의한 현실이 가득하며 온갖 폭력, 테러, 전쟁이 발생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교적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기후위기 시대에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생태 선교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게 되면서 생명, 평화, 정의라는 선교적 주제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대체로 정의를 사회선교의 차원에서, 평화를 교회의 통일준비 및 북한선교의 차원에서, 생명을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실천 차원에서 다루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 영역은 구별된 별개의 사역 분야라고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면서 정의, 평화, 생명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탐욕적인 문명을 확장시키면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문명의 죄는 생명세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기후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거꾸로 인간 사회의 정의도 무너뜨리고 평화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의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에서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은 전통적인 정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4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이 발생

한 직접적 원인은 시리아 내전에 있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시리아의 극심한 가뭄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가 가난한 계층과 국가 그리고 다른 동료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피조세계와의 화평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다녀보면 교회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교회들은 다양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고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지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교의 대상이 피조세계와 동료피조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 주변의 생태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보호에 있어 지역생태계의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만큼 주변의 생태환경도 다양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공동체의 환경문제도 다양할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앞장선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생태교회의 선교분야 실천 매뉴얼을 정의, 평화, 생명, 기후위기라는 세부 분야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실천

1. 생명을 위한 선교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단지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선교의 대상이다.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을 일컫는 말로, 모든 생물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물론, 각 생물들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다.

모든 생명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긴밀하게 서로 얽혀있다. 그런데 어느 한 종의 세력이 약해지면 다른 종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단지, 동물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나무 중에 한라산과 지리산 등의 해발 1200m 이상 고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구상나무가 있다.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로 불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0년 9월 7일 평가를 통해 구상나무를 '준위협(NT)' 목록에서 '멸종위기(EN)' 목록으로 위험 등급을 두 단계나 상향 조정했다.

나무 한 종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까? 구상나무 수명은 인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상변화에 민감한 고지대에 살고 있어 기후변화 식물 영향 연구에 적합한 식물 중으로 평가받는다. 즉,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한반도 고유 식물종인 구상나무가 기후위기로 인한 최초의 한반도 멸종 종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9년부터 한국교회와 함께 사막화방지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몽골 아르갈란트 숲에 숲을 조성하고 있다. 허허벌판이었던 작은 땅에 나무를 심은지 10년이 지나 지금은 열매들이 맺히면서 새들과 야생동물이 찾아오는 '은총의

숲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환경부도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산림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부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회상으로

도시농업

도시농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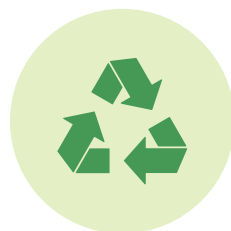
농업 도심 속 단독 주택의 화단이나 건물의 옥상, 동네 자투리땅, 학교 운동장 따위를 농지로 이용하는 농업. 야채와 과일 재배는 물론 가금류 따위를 기르기도 한다.



내 손으로 기르는 신선채소




휴식과 안정감



도시 생태계의 보존

도시농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졌던 종들의 서식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도시농부들이 우리 씨앗을 심고 가꾸며 보전하는 활동은 단순히 건강한 먹을거리를 되찾는 차원을 넘어 유전적 다양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주말농장
- 옥상에 텃밭 만들기
- 토종씨앗 나눔
- 정원에 여러 가지 식물 심기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12달 (류경오/ 아시아종묘) 

도시농업의 미래 | https://youtu.be/YE9fUjHnO_Nk 


의식있는 밥상



축산업은 지구온난화, 산림파괴,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파괴의 주범이며 전 세계 농업용지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소고기 1인분을 만들기 위해 곡물 22인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아와 영양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다.

- 고기없는 주일 정보보기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소비

우리같이 착한 소비 (조희정 / 그레이트북스) 

육식의 종말 | <https://youtu.be/c8sybFe0Hxs> 


생물다양성 보전하기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남획, 기후변화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외래생물을 꼽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웃 생명들의 멸종은 곧 인간의 멸종을 의미할 수 있다.

- 마을생태계 지도 만들기
- 우리동네 멸종위기종 찾기
- 우리동네 야생동물 구조센터
- 몽골 은총의 숲 참여하기

몽골 은총의 숲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2009년 몽골 정부에 토브 아르갈란트 숲 지역 30ha를 30년간 임차해 현지 비정부기구 '그린 실크로드'와 묘목 2만 8000주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숲이다.

왜래 동식물 무엇이 문제일까? (이억주 / 동아엠엔비)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식물 | <https://www.youtube.com/watch?v=HT0Q23q5YMs> 

은총의 숲 | <https://youtu.be/AZHS22-izr0> 

2 평화를 위한 선교

선교는 화해하는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맡은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다. 관계를 단절시킨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시 화해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2014년 한전이 주민 반발 속에 강행한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모두 끝났다. 그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공사가 끝난 지금, 갈등과 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을까?

송전탑이 들어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있을 정도로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자녀들 역시 자연스럽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성장하였다.

공사가 끝난 지금, 마을에 행사가 있어도 서로 함께 참여를 독려하며 단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무관심과 언성을 높이며 서로 대립하는 마을이 되었다. 예전에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통해 웃으며 넘어가던 일들이 지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몸싸움으로 커지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마을이 되고 말았다.

과연, 송전탑 건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밀양에 세워진 송전탑은 동해안 지역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밀양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도시 발전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이면에는 지역간 불균형과 주민 간의 갈등 같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송전탑, 신공항, 산업단지, 관광 등의 개발 문제로 정부와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루는 발전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교회는 효율성이 아닌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갈등의 현장에서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와 진행을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함께하는 삶, 공생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관한 일이나 필요한 활동을 직접 결정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과정 등을 통해 꿈꾸는 마을을 지역주민이 함께 세워갈 수 있다.

- 마을 소모임 지도 만들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참여하기
- 지역 환경단체 후원 및 참여하기
- 마을에서 리빙랩 운영하기

리빙랩(Living Lab) 살아있는 실험실, 생활연구실 등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란 의미,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해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시민(사용자)이 직접 참여 해결함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조용훈 / 동연) 

가정,교회,마을 교육공동체 (김도일 / 동연) 

마을에서 시작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 <https://youtu.be/s1a5leXNhLs> 

성대골 리빙랩 | <https://www.youtube.com/watch?v=JAJAG3rwnk> 

평화로운 삶, 공존



생태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 복원 선교를 시작하자

-마을의 생태통로 확보

-마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마을 정원 만들기


-게릴라가드닝

게릴라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은 방치된 땅, 잘 관리되지 않는 땅을 시민들이 법적 권리나 사적 소유권이 없지만 기습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활동

-우리동네 작은 동물들 집 마련(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인디고 서원에서 공생의 책임기 (인디고 서원 / 궁리) 

동상자 (김황, 한솔수북) (김황, 한솔수북) 

지식채널 게릴라가드닝 | <https://www.youtube.com/watch?v=thifC29Ez4>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 https://youtu.be/z_oRJ5UvpFw 

이해하는 삶, 공감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다.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풀어갈 수 있다.

-마을의 갈등현장 찾아가기


-갈등조정센터 운영

-회복적 서클(비폭력 평화) 참여

회복적 서클 (Restorative Circle)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분노와 비난 대신에, 개인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여 공동체 내 정의를 추구하는 갈등 해결 모델

갈등과 소통 (김영임 외 / 지식의 날개) 

환경갈등이란 무엇일까? | https://youtu.be/D63J6Zu_-Wc 

지구돌봄을 위한 유쾌한 탐험 토깅어스 (서클방식 생태보드게임) | https://www.youtube.com/watch?v=Q_rwxYHyJjs 

3. 정의를 위한 환경선교

선교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나라마다 경험하는 피해의 수준은 다르다. 빈곤한 국가와 농어촌지역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후정의는 이러한 기후 영향의 양극화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하며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국가들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수많은 피해로 인해 생명권과 식량권 등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옥스팜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배출하는 반면, 전 세계 하위 50% 빈곤층이 만들어내는 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0%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그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즉, 기후변화의 원인은 선진국이 초래하고 결과는 후진국이 받는다는 것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공평한 노력을 추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해 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똑같은가? 산업화된 도시에 비해 농촌은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단지 강수량이나 태풍의 피해 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시 되지 않던 병, 해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농촌에도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기후난민



탄소중립 이야기

기상이변으로 인해 떠나는 사람들 기후난민

국립환경교육센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하며,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이주한 사람들을 생태학적 난민이라 한다.

-기후난민 알아보기

-관심과 후원 활동 (기후기금 모으기)

-삭계오기금 모으기

*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기후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삭계오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요? (베랑제르 탁실 / 개안나무) 

기후난민 | <https://youtu.be/N-ryArhwJLM>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https://www.youtube.com/watch?v=xVNFq3mafRE&t=15s> 

식량위기



과거에는 내전이나 무력충돌 같은 분쟁이 기아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빈층과 기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식습관을 키우고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 로컬푸드 이용

-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

- 슬로푸드(Slow Food) 확대

* 슬로푸드는 자연적인 조리 과정을 거친 음식으로 빠르게 만들어 먹는 패스트푸드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 공유냉장고 설치

- 공동식사 잔반 제로 운동

- 도농 직거래 활성화

인류를 식량 위기에서 구할 음식의 모험가들 (아만다 리틀 / 세종서적)

식량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김택원 / 동아엠엔비)

기후변화가 가져올 식량위기 | <https://youtu.be/4Q1-ZYodOg8>

농촌의위기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가뭄, 홍수, 냉해, 해충 등의 급격한 증가는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작목별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고, 돌발적인 병해충과 외래 잡초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토종씨앗 활성화

*토종씨앗

일정한 장소에서 순계로 장기간에 걸쳐 그 지방의 자연환경에 적응된 그 지방 특유의 생물(種)로, 자생종과 재래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함

-농촌교회와 생명의 망 잇기

-우리 주변의 GMO 식품 찾기

-농민 기본소득 확대 요구

생명을 살리는 토종씨앗기행 30년 (안완식 / 이유) 

함께 생각하자 GMO | (김훈기 / 풀빛) 

기후위기, 모두가 기후농부 | <https://youtu.be/v4Cme2RELal>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선교

선교는 시대가 당면한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기후위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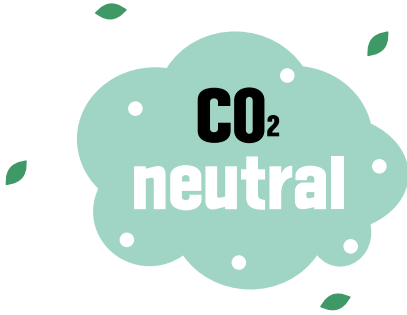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는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으로 상당부분 배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탄다. 또 전기를 통해 빛과 열을 만들기 위해 석유를 태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질타하지 않았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공장을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생산품을 쏟아내는 것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더욱 산업화되었고, 복잡하게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0년 여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비 피해가 심각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7,8월에 전국에 물난리가 났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54일이나 장마가 이어졌고,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핸드폰엔 재난 문자가 폭주했고, 뉴스에서는 도시가 흙탕물에 잠긴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다. 심지어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가거나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불렸다. 지난 폭우는 아주 강한 몬순이 원


인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의 수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름 몬순(계절풍, 1년 동안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바람)을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폭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가 따뜻해지고, 증발하는 물의 양도 많아진다. 이렇게 증가한 수증기는 많은 비가 되어 내린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30년이나 100년 만에 한 번꼴로 일어나던 극한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주기가 짧아지고 빈도가 높아졌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했고, 이는 재해성 날씨로 이어지고 있다. 탄소 기반의 인간 활동이 원인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우리가 멈춰야 한다.

저탄소생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멀티탭 사용하기 (대기전력 최소화하기)
-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동참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Co2 저탄소 도시 (다케모토 가즈히코 / 한울 아카데미)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에너지시민연대) | <https://www.youtube.com/watch?v=zGTJmd70SDg> 

온실가스 줄이는 생활습관 | <https://youtu.be/4fWjify4Lz8> 


에너지 전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이란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방법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 설치
-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 제로에너지건물(ZEB) 건축
- 그린 리모델링 건축
- 에너지 컨슈머(Energy Consumer) 되기

*에너지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서의 적극적인 에너지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주체들을 뜻함

한국교회의 에너지 전환과 햇빛발전소 이야기 (한국교회환경연구소 / 동연) 

에너지 컨슈머 관련 정보 | <http://www.energyconsumer.net/>

위태로운 지구를 회복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 <https://youtu.be/eVdQ4H4DLvk>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 활용 제품(GR), 저탄소 제품 등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 녹색제품, 저탄소제품 이용
- 온오프라인 녹색매장 이용
-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샵 이용 및 확대

제로웨이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운동

- 녹색가게/ 초록가게 이용
- 생활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가게(알맹상점) 이용

오늘부터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 (장서영 / 비즈니스맵) 

환경마크 60초 영화제 | https://youtu.be/SMAGle_dkkU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https://youtu.be/8eJGn51VXdo>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